

제5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

[2024~2028]

지역상생과 미래혁신으로
글로벌 국제회의산업 중추국가로 도약한다

2024. 7. 18.



문화체육관광부

※ 동 기본계획은 예산반영 등 관계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후 일부 변동 가능

목 차

I. 추진 배경	1
II. 현황 및 진단	2
III. 추진 방향	5
IV. 중점 추진과제	6
1. 지역 성장동력 국제회의산업 육성	6
2. 국제회의산업 글로벌 시장 선도	10
3. 미래형 국제회의산업 혁신 기반 강화	14
4. 지속가능한 국제회의산업 법·제도 마련	17
V. 추진 일정	21
참고 1. 제5차 기본계획 추진 경과	23
참고 2. 제1~5차 기본계획 변화	24

I. 추진 배경

□ 그동안 국제회의산업은 대표적 ‘고부가 관광산업’으로 자리매김

- 국제회의산업은 대규모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여 호텔, 쇼핑 등 연관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대표 관광산업임
- * 국제회의 참가자 1인당 지출액은 2,797천원, 일반 외래객 지출액의 약 2배 수준 (2019 MICE 참가자 조사, 외래관광객 실태조사/한국관광공사)

□ 팬데믹 이후 국제회의산업의 ‘빠른 회복’ 필요

- ‘19년 국제회의 개최 건수 대비 38%* 수준 감소, 수도권 지역 중심 국제회의 개최(약 60%) 등으로 재도약을 위한 변화 필요성 증대
- * 국내 국제회의 개최 건수: (‘19년) 1,113건 → (‘23년) 423건 * UIA(국제협회연합) 기준
- 디지털 전문인력 고용지원, 국제회의 지원기준 완화 등 팬데믹 대응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제회의기획업 경영환경 지속 악화
- * 국제회의기획업 부채비율(=부채/자본): (‘19년) 105% → (‘22년) 123% (각년도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전자공시시스템)

□ 국제회의산업의 ‘비즈니스 모델 확장’에 따른 정책 대응 요구

- 국제회의 유치 중심 지원체계에서 지역산업 기반 국제회의 발굴 및 세계적인 K-국제회의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적 지원 필요
- K-국제회의와 문화콘텐츠, 스포츠행사 등과 융합한 국제 이벤트 성장지원*으로 국제회의 무대 주도 이미지 각인 필요
- * (예) 스타트업 컨퍼런스 SLUSH(핀란드), 이동통신산업 컨퍼런스 MWC(스페인) 등

□ 국제회의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

- 새로운 정책환경에 부합하는 국제회의산업의 미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5년 단위 법정계획 수립·추진
-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 지역과 산업계가 동반 성장하도록 전략적 국제회의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글로벌 국제회의 중추국가로의 도약 발판 마련

Ⅱ. 현황 및 진단

1 현 황

□ (국내) 국제회의산업 시장은 아직 더딘 회복세

- 국제회의 신규시장 유치 발굴 등 국제회의산업 시장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화획득액 및 외국인 참가자 수* 회복세 주춤

* 외화획득액/외국인 참가 수 ('19년) 20억 달러/83.3만명 → ('22년) 2.7억 달러/ 16.6만명
(각년도 MICE산업통계조사·참가자조사(한국관광공사))

- 국제회의 개최 실적은 세계 4위이나, '19년 대비 회복률은 저조

* 국내 국제회의 개최 순위: ('19) 2위 → ('23) 4위 * 각년도, UIA(국제협회연합) 기준



<외화획득액 및 외국인 참가자 수>



<국제회의 개최건수(UIA, ICCA)>

□ (해외) 세계 국제회의 시장 점유를 위한 각국의 공세 본격화

- 세계 각국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제회의산업이 경제적 파급효과 극대화 및 지역 균형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보고 관련 정책 마련
- 전 세계 국제회의 개최 건수는 8,486건('23년)으로 코로나19 이전 대비 68% 수준 회복('19년 12,472건 / UIA(국제협회연합)기준)

< 해외 주요 정책현황 >

- **(일본)** 방일 외국인 소비액 5조엔 달성을 위한 '신시대 인바운드 확대 액션 플랜' 발표('23)
- '25년 아시아 최대 국제회의 개최건수 목표로 적극적인 기업 글로벌회의·국제학회 유치
- 자국 국제행사 발굴·육성, 스포츠+유니크베뉴
- **(영국)** '23-'24 국제회의산업 육성 계획 발표
- 지속가능한 개최지 육성을 위한 국제회의 개최역량 강화 지원
- 국제회의의 지역 경제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한 지역관광 추진조직 역할 쇄신

□ 지역균형발전에 맞는 국제회의산업 수요 창출 필요

- (개최지역 불균형) 지역의 국제회의시설은 공급 대비 국제회의 개최 수요가 부족, 현재 국제회의 개최실적도 여전히 수도권 중심
 - * 전국 국제회의시설업(17개) 중 수도권 외 지역은 64.7%(11개/24)를 차지하나, 국제회의 개최지역 58.9%가 수도권에 집중('23년 UIA 기준)
- (전담조직 기능 약화) 국제회의 유치·개최 핵심 기관인 지역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축소로 지원체계 정비 및 역량 강화 필요
 - * 전담 지역컨벤션뷰로(CVB)은 2개로 극소, 대부분 지역관광공사재단 내 기능 담당

현장의 목소리

-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산업과 연계한 신규 국제회의 발굴 및 전담조직 축소화 따른 규모별 차등 지원 필요('23.8. 시설지역CVB현장 간담회 '23.11. 민관합동 정책 토론회)

□ 국가 간 국제회의 유치경쟁 심화에 따른 경쟁력 강화 전략 요구

- (글로벌 경쟁 치열) 일본, 태국, 영국 등 세계 각국에서 국제회의 시장 선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중, 우리도 다각화 전략 필요
 - * 일본과 태국의 경우 국제회의 참가자 편의 제고를 위한 공항 출입국 서비스 제공
- (한국 대표 국제회의 부재) 국제회의산업 발전을 위해선 국제회의 유치뿐만 아니라 한국형 국제회의 육성을 위한 지원전략 시급

현장의 목소리

- ☞ 대규모 국제회의 유치·발굴을 위한 다양한 기관과 협력이 요구되며, 국내 기반 K-대표 국제회의 창출을 위한 단계별 육성 체계 필요('24.5. 국제회의업계 간담회)

□ 국제회의산업 지속성장을 위한 안정된 생태계 기반 부족

- (높은 소기업 비중) 전반적으로 영세한 국제회의기획업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 필요
 - * 전체 국제회의기획 사업체(1,299개사) 중 ▲5천만 원 미만 매출액 사업체 61.3%, ▲10명 미만 종사자 사업체 81.8% 차지(2022 관광산업조사)

- (인력 부족 지속) 코로나19 당시 이탈한 전문인력의 복귀가 미흡하고 신규인력 유인의 어려움으로 인력확보 지원 필요

* 전국제회의기획업 종사자 수(명): ('19) 9,423 → ('22) 8,080 (△14.3%) (관광산업조사, 각년도)

현장의 목소리

- ☞ 종사자의 비전 불투명에 따른 타직종 이직, 직업이 요구하는 역량(외국어, 기획력 등) 대비 낮은 급여, 불확실한 업무시간('23.11. 산관학 정책 토론회, '23.7. 예비인력 간담회)

□ 국제회의산업 지속성장을 위한 법·제도 정비 뒷받침 필요

- (국가-지역 연계 미흡) 문체부, 지자체가 각자의 영역에서 국제회의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계는 부족
- (성과관리 부족) 국제회의도시 및 국제회의복합지구 제도 평가 미비로 본래의 국제회의산업 진흥 목적에 맞는 운영 필요

현장의 목소리

- ☞ 중앙-시도 간 국제회의산업 정책의 정합성 제고가 요구되며, 기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및 성과관리 필요('23.11. KME 산관학 토론회)

3

국제회의산업 발전방향

- (1~4차 계획) ▲국제회의산업 발전 기틀 마련('98~'05), ▲양적 성장 기반 구축('06~'10), ▲고부가가치화와 시장확대('14~'18),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19~'23)까지 다양한 국제회의산업 발전계획 추진
- (5차 방향) 정부 국정목표 “지방시대”에 부합하는 국제회의산업 지역 협력을 구축하고 “글로벌 국제회의산업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설정

문제점 및 환경변화	추진전략	정책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최지역 불균형 • 지역 전담조직 축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성장동력 국제회의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수요 창출 • 유치·개최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경쟁 심화 • K-국제회의 육성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회의산업 글로벌 시장 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성장체계 마련 • K-컬처와 국제회의 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소기업 비중 • 핵심 인력 이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형 국제회의산업 혁신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영역 확장 • 인력확충 및 맞춤형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 기반 제도 정비 필요 • 제도 성과관리 강화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국제회의산업 법·제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도 정비 • 산업 정책 기반 조성

Ⅲ. 추진 방향

비전

**지역 상생과 미래 혁신으로
글로벌 국제회의산업 중추국가로의 도약**

방향

- ◇ [Collaboration] 지역 협력 및 상생으로 국제회의산업 지방시대 실현
- ◇ [Convergence] 창의적 융합으로 글로벌 국제회의 시장 선도
- ◇ [Competitiveness] 국제회의산업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 기반 강화

목표

	<2019년>		<2028년>	
개최건 수	1,113건	→	1,400건	(세계1위/UIA)
외국인 참가자 수	83만 명	→	130만 명	
외화획득액	20억 달러	→	30억 달러	(약 4조원)

추진 전략

1

지역 성장동력 국제회의산업 육성

- 1-1 지역 국제회의 신규수요 창출
- 1-2 지역 국제회의 유치·개최 역량 강화

2

국제회의산업의 글로벌 시장 선도

- 2-1 국제회의산업 글로벌 성장체계 마련
- 2-2 K-컬처와 국제회의 융합

3

미래형 국제회의산업 혁신 기반 강화

- 3-1 국제회의산업 영역 확장
- 3-2 국제회의산업 인력확충 및 맞춤형 인력양성 육성

4

지속가능한 국제회의산업 법·제도 마련

- 4-1 국제회의산업 법·제도 정비
- 4-2 국제회의산업 정책 기반 조성

IV. 중점 추진과제

1 지역 성장동력 국제회의산업 육성

1-1 지역 국제회의 신규수요 창출

□ 지역 시그니처 국제회의 성장단계별 육성

- (지역대표 육성) 지역의 국제회의 수요 창출과 산업 연계 발전을 위해 한국형 국제회의 단계별 육성 체계 구축(최대 20년 지원)
- (지역 시그니처 국제회의) 지역 국제회의 전담조직이 전략 산업*과 연계한 국제회의를 발굴·육성토록 기획 및 개최 지원(최대 4년)
 - * 반도체, 원자력, 우주항공, 수소에너지, 문화유산 등 지역 특화 자원
- (K-유망 국제회의) 국내 기반 국제회의(3회 이상 개최) 대상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춘 회의로 발전토록 안정적인 성장 지원*(최대 6년)
 - * 개최 운영, 해외 박람회 참가 홍보, 글로벌 전략 컨설팅 등
- (K-대표 국제회의) 유망 국제회의를 넘어 한국판 다보스 포럼으로 성장 가능한 국제회의(10회 이상 개최 대상) 선정, 집중 지원*(최대 10년)
 - * 한국만의 독특한 대형 국제이벤트로 성장토록 문화콘텐츠, 스포츠 행사 등과 연계
(예) 몬트리올 C2 Montreal(태양의 서커스 결합 컨퍼런스), 텍사스 SXSW(음악축제 결합 컨퍼런스)

< 지역 시그니처에서 K-국제회의까지 성장단계별 지원 >

성장단계	(발굴·기획) 지역 시그니처 국제회의	(성장·안정화) K-유망 국제회의	(글로벌) K-대표 국제회의
신청 대상	지역 국제회의 전담조직	국제회의 주최자 (지역 국제회의 전담조직 포함)	국제회의 주최자 (지역 국제회의 전담조직 포함)
기개최 횟수	지역전략산업 주제로 최초 또는 3년 미만 개최한 국제회의	3회 이상 개최한 국내 기반 국제회의	10회 이상 개최한 국내 기반 국제회의
지원 항목	· 기획 컨설팅·전략 환경분석 등 · 개최 및 운영비 등 ~최대 4년	· 국외 직접 홍보비 · 개최 관련 비용 · 중장기 성장전략 컨설팅 ~최대 6년	· K-유망 국제회의의 지원 · 부대행사 기획개최비 ** 대표 국제회의에 최초 기획접목한 융합행사에 한하여 기획비 지원 ~최대 10년

※ 세계 우수 국제회의 성장기간 : 다보스포럼(약30년), SLUSH(스타트업) 컨퍼런스(약20년)

□ 지역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제도 개편

- (지원 강화) 소규모 국제회의 개최 경향 반영하여 지역 가점 상향, 유치 지원구간 간소화 등 지역 기반 국제회의 지원 강화*

* 지역 가점(0.1→0.3점), 구간 축소(5→3단계), 최저 지원금 상향(5→7백만원)

- (공동 유치 협력) 유치 초기단계부터 지역 전담조직-한국관광공사(해외 지사)-분야별 전문가 간 유치위원회 구성, 유치 마케팅* 공동 전개

* 유치위원회 정례회의, 입찰 제안서 준비, 지지서한 발송, 전차(前次)대회 공동 참가 등

- 지역 전담조직·컨벤션 시설 등 협업하여 국제회의 의사결정권자 방한 시 지역 국제회의시설·관광지 답사프로그램 운영

□ 지역 기업회의·포상관광 유치 활성화

- (제도운영 다각화) 해외 송출기업-글로벌 온라인 여행사협업으로 소규모·개별관광화에 맞춘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

* 구미주, 대만, 일본 등의 경우 개별 기업회의·포상관광 단체 증가 추세

- 소규모 연속 방문단체(연간 5회이상으로 나누어 지속 방문)와 업무 협약 체결로 지속적인 방한 유도

- (지역 방문 확대) 기업회의·포상관광 참가자의 수도권 집중 방문*을 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한 지역기반 신규 협약관광지 발굴 및 특별지원**

- 유치 의사결정자 방한 팸투어 시 지역 협약관광지 우선, 협약관광지 홍보 책자 발간 및 마이스 해외 로드쇼 등을 통한 집중 홍보

* '23년 협약관광지 방문 외래관광객 54천명 중 49천명(90.7%)이 수도권 방문

** 매력 있는 지역 협약관광지 콘텐츠 개발 토대로 ▲패키지(입장권+체험+식사) 항목 다양화, ▲지역 협약관광지 방문 시 추가지원(기념품, 식사비 일부 등)

◎ 협약관광지 지원제도

- (개요) 기업회의·포상관광 방한객 대상 인기 관광지 방문 유도를 위한 제도
- (내용) 공사와 인기 관광지 간 협약계약으로 입장료 및 체험비 할인 등 지원

□ 국제회의복합지구 제도 확대

- (예비 국제회의지구 육성) 지역 국제회의 개최역량 균형발전을 위해 국제회의복합지구 정책지원에 소외된 지역 대상 예비지구 지원

< 국제회의복합지구 확대 육성(안) >

구분	(기존) 국제회의복합지구	(추가) 예비 국제회의지구
정의	국제회의시설을 중심으로 호텔, 쇼핑몰 등 연관시설 집적화가 가능한 곳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이 집적화된 장소 국제회의지구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요건 일부 미충족한 지역 대상)
지정·선정권자	문체부 승인(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진흥계획), 시·도지사 지정	문체부, 예비지구 지원대상 선정
지정·선정요건(안)	아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는 경우 ① 전문회의시설 완비 ② 외국인 참가실적(전년도 5천명 이상 등) ③ 집적 시설(숙박·박물관 등 1개소 이상) ④ 편의시설 완비(교통시설 등) ※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 제13조의2	① 아래 전문회의시설 3개 요건 중 2개 이상 충족하고, 가. 대회의실이 있을 것(2천명 이상 등) 나. 중소회의실이 10실 이상(30명 이상 등) 다. 옥내·옥외 전시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 ②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갖추는 경우 가. 외국인 참가실적(전년도 5천명 이상 등) 나. 집적 시설(숙박·박물관 등 1개소 이상) 다. 편의시설 완비(교통시설 등)
지원	·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지구 공간, 참가자 편의 등 지원)	· 예비 국제회의지구 활성화 지원 (홍보마케팅 사업 지원)

※ 추후, 지역 지정 여건 세부 검토,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 등 고려, 확정 예정

- (복합지구 지정 및 평가) 세계적 수준의 국제회의시설 집적화를 위한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지구 활성화 지원** 및 운영성과 평가 도입

* '24년 복합지구: 7개소(인천, 경기 고양, 대전, 광주, 대구, 경북 경주, 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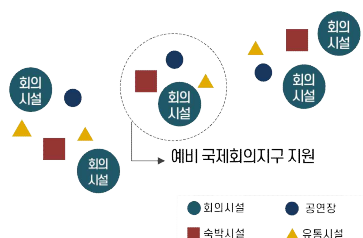
** 지구 공간 활용 및 기반조성, 집적시설 및 참가자 편의 지원 등

- (시·도간 광역 협력) 2개 이상의 국제회의복합지구 연계(예비 국제회의지구 포함)하는 국제회의 광역권 협력 구축, 지역 역량결집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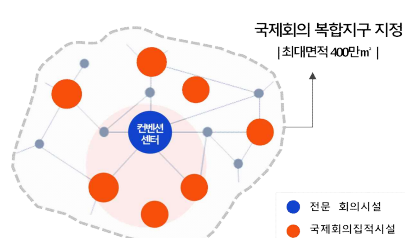
* (예) A복합지구: 국제회의 개최지역, B복합지구: 참가자 관광프로그램 제공

◎ (개편 시) 국제회의복합지구 제도 다변화

[예비 국제회의지구]



[국제회의복합지구]



[국제회의 광역권 협력 구축]



□ 지역 국제회의 전담조직 기능 강화

◎ 현 국제회의 전담조직 지원제도 현황(국제회의산업법 제16조)

- (개요) 지자체가 설치한 국제회의 전담조직에서 예산지원 신청 시 유치·홍보사업비 지원
- (대상) 지자체에서 설치한 국제회의 전담조직
 - * '24년 지자체 전담조직 설치(총 19개):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경남, 전남, 전북, 제주, 경주, 고양, 수원, 강릉, 안동, 충북

- (지원대상 지정 및 평가체계 개선)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원하되, 문체부-한국관광공사는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주력
 - 「국제회의 전담조직 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조직구성·기능, 인력, 예산편성·집행계획 등 적합 심사 후 지원대상 전담조직 지정
 - 예산 지원 시 전년도 지원사업 성과평가와 연계, 차등 지원* 추진
 - * 우수기관에 인센티브 지급, 영세하거나 신생지역 대상 별도 지원기준 마련
- (역량 강화) 기존 국제회의 홍보 지원항목 외에 지역 국제회의 전담인력 교육 등 역량 개발 지원으로 전문성 배양 기반 마련
 - 지역 전담조직 우수사례를 다른 지역 전담조직과 공유하여, 상호 참조를 통해 효과적인 운영 모델이 확장될 수 있는 토대 정비
 - * 한국 마이스산업 발전협의회 개최 시 우수사례 발표 및 상호 멘토링 추진

□ 국제회의 엠버서더(Ambassador) 위상 강화

- (유치 전문가 활약) 국제회의 분야 영향력과 지명도를 갖춘 국내외 인사 대상으로 한국 국제회의 엠버서더(홍보대사) 위촉*·운영
 - * 국제회의 전·현직 한국 임원, 지역 유관기관 추천 등으로 총 9명 선정('24)
 - 국제기구·협회 본부 방문, 의사결정권자 대상 득표 활동, 엠버서더 추천으로 유치 유력인사 팸투어 지원 등 활발한 전개 활동 지원
- (민간 전문가 협력) 국제회의 유치 대상 발굴 후 공동 유치위원회 구성 시 민간 전문가로 참여, 정보 공유 및 유치 전략 자문

2 국제회의산업 글로벌 시장 선도

2-1 국제회의산업 글로벌 성장체계 마련

□ 글로벌 국제회의 유치 네트워크 강화

- (해외 조직망 확충) ▲국제기구·학회 본부 소재지 ▲ 기업회의·포상관광 확대국 중심으로 유치 전담 지역 2배 확대(9 → 18개)
 - 현지 로드쇼 개최 등 유치 마케팅, 유관기관(국제기구, 학·협회, 여행사 등) 네트워킹, 아웃바운드 관광 시장조사·동향분석 등 수행

< 국제회의·기업회의·포상관광 분야 신시장 개척 >

- (국제회의: 7개소) 뉴욕, 프랑크푸르트, 런던, (신규) LA, 시드니, 파리, 토론토
- (기업회의/포상관광: 11개소) 광저우, 하노이, 싱가포르, 자카르타, 방콕, 쿠알라룸푸르, (신규) 베이징, 뉴델리, 두바이, 오사카, 타이페이



☞ 유치 해외 조직망 확충으로 ① 세계 유치시장 선점 + ② 국제 네트워크 교류 계기

□ 대형 국제회의 집중 유치·개최 지원제도 확대

- (지원제도 개편) 대형 및 주요인사 참가 국제회의 지원 조건 완화* 및 맞춤형 용역 서비스 제공으로 국제회의 성공 개최 기여

* (기존) 4개 조건 모두 충족 → (변경) 2개 이상 충족 시 지원 가능

<지원요건> ① 공공성격의 회의, ② 참가대상이 장관급 이상이거나 광역 행정기관의 장인 회의, ③ 국제회의산업 활성화 목적 ④참가대상의 50% 이상 주요 의사결정권자 또는 외국인 참가자 1,000명 이상

- 국제회의 참가자도 K-컬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홍보관 운영, ▲문화공연 ▲단체·개별 맞춤형 관광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 (상시 민관협의체 운영) 전략적인 대형 국제회의 유치·개최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지자체(전담조직, 회의시설 등)-학·협회-업계 협의체 상시 운영*
 - * 한국 마이스산업 발전협의회 분과위원회로 운영, 유치 전략 수립부터 개최까지 협력
 - ▲현지 유치·개최 정보 공유, ▲공사사업 협력, ▲해외 박람회 참가, 유치마케팅, B2B 상담 등으로 신규 대형 국제회의 발굴 기회 제공

- (기업회의·포상관광 유치) 해외진출 한국기업을 통한 수요 파악*, 유관 기관 공동 마케팅, 지원제도 운영 절차 간소화 등 대규모 방문객 유치

* 방한 수요조사, 기업규모·여행횟수 등 고려 우수고객 DB 구축 및 체계적 관리

□ 국제회의 주요 참가자 공항 입국심사 우대

- (참가자 편의 제고) 국내 국제회의 재유치 및 재방문 활성화를 위한 국제회의 주요 참가자* 대상 공항 입국심사 패스트트랙 도입

* (적용 대상(안)) 국제회의 민간 주최기관, 개최 의사결정자, 기업대표 등

◎ 해외 국제회의 참가자 입국 편의 지원 사례

- 태국: 공항 패스트트랙 서비스 'MICE 레인' 운영
(국제회의 참여기관·기업대표 및 임직원 대상 출입국 심사, 세관신고 신속 처리)
- 일본: 고부가가치 비즈니스 여행자의 유치 촉진 목적으로 개인 제트기 이착륙 편의 서비스 제공(사전 신청 기간 단축(10일 → 3일))

□ 지속성장 가능한 국제회의산업 환경조성

- (표준계약서 정착) 국제회의산업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22.8월 제정) 준수·이행 제고

* (예) 입찰 후 정산조건 적용 요구, 부당한 이윤·일반관리비율 조정, 사후원가 검토 등

- 불공정거래 지원센터 운영으로 법률 상담, 협상 사례집 발간 등 추진, 표준계약서 활용도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제도(가점 부여) 운영

- (용역비 산출기준 마련) 국제회의용역 계약금액 책정 시 적정 대가 반영토록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산정 기준 연구 및 제도 개선

* 학술연구용역과 동일한 비용 산출기준으로 책정되어 기업의 지속적인 경영악화 요인

- (공정거래 모니터링 기능 강화) 인공지능(AI) 활용하여 불공정한 용역 입찰 정보 모니터링 체계 상시 구축·운영

- 용역 참가업체 대상 불공정 거래 정보 제공 및 법률 상담 지원

*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건수: ('21) 199건 → ('22) 220건 → ('23) 409건

□ 참가자 대상 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맞춤형 개별관광) 개별화된 여행 트렌드에 맞는 디지털 컨시어지 기술 활용으로 출발 전-중-후 원스톱 서비스 제공(QR바우처 활용)
 - 개최 장소 인근명소 정보, 모바일 쿠폰*, 실시간 다국어 서비스 포함
 - * 음식문화, 주변관광지(SNS 야경 명소카페·바 등), 쇼핑 등에 사용가능한 바우처 제공
- (맞춤형 단체관광) 국가별 방한 단체 성격에 맞춘 K-컬처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관광 프로그램 기획·운영

◎ 국가별 기업회의·포상관광 단체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안)

일본	중국 및 중화권	동남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니크베뉴 연계 K-만찬 · 백화점, 마트 쇼핑 지원 · 카페투어, K-굿즈 제작 체험 · 한방 웰니스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웰컴 스케치 영상 촬영 · 유니크베뉴 연계 K-만찬 · 글로벌 문화관광축제 방문 특전 제공 및 메인 콘텐츠 상시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니크베뉴 연계 K-만찬 · 겨울 스포츠/축제 체험 · 한방/자연 테마 웰니스 관광지 체험

※ 회의·그룹식사·팀빌딩 체험 등을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 프로그램 니즈 증가 추세 (Incentive Travel Index 2023)

- (전시회 연계) 해외 바이어·참관객 대상 맞춤형 관광 서비스 지원 등 블레저* 관광 활성화 추진
 - 외국인 참가 주요 전시회 발굴, 블레저 관광프로그램 개발 협업
 - * (유형) 전·반일 단체관광(관광지방문, 야간관광 등), 개별 맞춤형 관광(이색맛집 등)

◎ 블레저(Bleisure: Business+Leisure) 관광 개요

- (개념) 일과 여가를 함께 즐기는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국제회의 및 전시회 참가자가 출장 기간을 연장하여 여행 활동 참여
 - * 코로나19 계기로 일(출장)과 연관된 여행 욕구 및 활동 증가 추세
- (사업 방향) 체류 기간을 늘리고 활동반경을 넓혀 경제효과 확대 가능토록 비즈니스 관광객 특성(①한정된 시간, ②평일/소수, ③재방문 비율↑)에 맞는 사업 개발 필요

□ 융복합 국제이벤트 성장지원 확대

- (유치활동 강화) 해외 기업, 문화·스포츠 등 관련 단체, 국내 개최 이벤트 주최자 등 대상으로 국제이벤트 DB 구축 및 활용*
 - * 국제이벤트 현황 및 일정 조사, 세일즈콜 실시, 전차대회 참가 등
- (모객활동 강화) 해외지사 및 여행사 연계 국제이벤트 참가 상품 개발, 공사 플랫폼(Visit Korea) 활용 개별 여행객 티켓 제공 등 홍보
- (개최형태 다각화) 국제회의 단독 개최에서 벗어나 문화콘텐츠, 스포츠 행사 등과 융합한 국제이벤트*로 성장토록 다양화 지원
 - * 일본은 국제회의와 관련된 비즈니스, 문화예술, 스포츠 등의 교류 융합 정책 추진 중

□ 참가자 이색경험을 위한 유니크베뉴 활용

◎ 코리아 유니크 베뉴 (KUV: Korea Unique Venue / 한국 대표 이색 행사시설)

- 한국을 대표하는 매력과 특색을 가지고, 오래 기억될 독특한 장소적 경험을 제공하며, 국제회의 행사가 가능한 공간과 시설 * '24년 52개소 선정·운영 중(태권도원, 남이섬, 영화의 전당 등)

- (베뉴 활용도 제고) ▲정기 유니크베뉴 협의체 운영 ▲유니크베뉴 로드쇼 개최, ▲베뉴별 특화 체험상품 개발·운영 등으로 베뉴 활성화*
 - * 현재, 유니크베뉴 활용실적 저조하거나 특정 시설 편중 경향
 - 행사 주최자가 쉽게 베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정보제공* 강화
 - * K-MICE 웹사이트 내 베뉴검색 메뉴 구축(행사장 도면 수용인원 등), 홍보 콘텐츠 제작 등
- (성과관리 강화) 코리아유니크베뉴 자격 유지 심사제도 도입으로
 - ▲회의 유치·개최실적, ▲지원제도 참가 및 협력 실적 등 성과평가
 -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베뉴에는 인센티브*, 성과 저조 베뉴에는 개선권고·지정취소 등 체계적 관리 기준 마련
 - * △해외로드쇼 참가, 홍보자료 제작 등 우선권 부여 △우수사례 발표 등 홍보 기회 확대

3

미래형 국제회의산업 혁신 기반 강화

3-1

국제회의산업 영역 확장

□ 국제회의시설업 지원업종 확대

◎ 국제회의 개최장소 및 시설 등록 현황

- 국제회의시설업(전국 17개소)은 주로 전문회의시설로 등록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 국제회의는 전문회의시설(38.8%) 뿐만 아니라 호텔(38.8%), 휴양콘도미니엄(15.7%)에서도 개최됨(2022 MICE 산업통계 조사·연구)

- (업종 확대) 관광진흥법령 상 국제회의시설업을 (가칭)전문시설업과 준회의시설업으로 분할·신설하여 국제회의시설업 지원 대상 확대*
 - 국제회의 전문시설업은 기존 국제회의시설업 기준(전문회의시설, 전시시설, 부대시설)으로 준용
 - 국제회의 준회의시설업은 준회의시설 및 부대시설(주차시설, 쇼팽·휴식시설 제외)을 갖추도록 개정

<현행>			<개정안>	
국제 회의업	국제회의의 기획업	⇒	국제회의의 기획업	
	국제회의의 시설업		(가칭) 국제회의의 전문회의시설업	
			(가칭) 국제회의의 준회의시설업	

- * 국제회의의 준회의시설업 포함 시 업체수가 17개에서 537개 확대 예상
(호텔업 199개, 휴양콘도미니엄업 95개, 기타시설 243개(유니크베뉴 등)/2023 MICE산업 통계조사 모집단)
- 그 외 국제회의의 지원 및 서비스 관련 업종 확대 지속 검토

□ 국제회의업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

- (수출 기반 조성) 해외진출 시 정착부터 현지화, 투자유치까지 수요 맞춤형 지원 가능한 해외거점 국제회의 전문 수출지원센터* 운영

*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내 해외 유치 조직망 활용(최대 18개)

- ▲현지 사무공간 마련, ▲현지화 컨설팅, ▲비즈니스 매칭, ▲해외 투자 유치, ▲해외 진출 예정 현지 시장·법률 조사 등 지원
- 현지 기업협회, 코트라, 상공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 기업 DB확보 및 업계 맞춤형 정보 제공, 공동 마케팅 등 추진

◎ 국제회의산업 수출 유형(안)

수출 항목	주요 내용
행사 개최 기술 활용	· 국제회의 참가자 관리 시스템 등 행사 관련 기술
행사 기획·운영 컨설팅	· 현지 공무원 및 업계 대상 국제회의 기획·운영 역량 강화 교육
해외 행사 개최	·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회의를 해외에서 개최

□ 국제회의산업의 디지털 기술기반 혁신 창출

- (국제회의 테크 기업 육성) 국제회의 행사에 필요한 AI, 빅데이터 등의 디지털 기술 활용지원*으로 국제회의 테크 기업 육성(10개 이내)
- (국제회의기업 기술 활용) 행사 주최자·참가자 편의 제고, 기업 행정 업무 효율화 등을 위한 기업별 맞춤 기술 바우처 지원(100건 이상)

국제회의 테크 기업 육성	국제회의기업 기술 활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경쟁력을 갖춘 AI 플랫폼, B2B 솔루션 · 글로벌 확장 가능한 K-MICE 선도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CE 행사 개최 전반에 걸친 DX 혁신 · 기업 내부 업무효율성 개선, 업무자동화

* (예시) ▲인공지능(생성형 챗봇, 맞춤형 비즈매칭, 자동 통/번역 등), ▲빅데이터 활용(행사장 내 참가자 실시간 위치 등), ▲출입관리앱(참가인원수, 체류시간 파악 등)

□ 국제회의산업 통합정보 원스톱 플랫폼 구축

- (K-MICE 개편) 국제회의 유치·개최 노하우 축적, 활용을 위한 아카이브로 활용코자 K-MICE(국제회의 정보제공 사이트/한국관광공사) 개편
- ▲유치·개최 이력 정보 및 주최기관 DB(유관협회협업*), ▲고용 정보 공유, ▲최신동향 및 전망 분석, ▲한국관광공사 지원사업 신청 시스템 마련

* MICE 지식마당 개편·통합, 유관 협단체 사이트 연계 등

□ 국제회의산업 인력확충 지원

- (유휴·해외인력 활용) ▲국제회의 특화교육 수료한 경력단절여성* 대상 취업 연계(PCO협회 협업), ▲어학 능력이 우수한 외국인력(국내 유학생 등) 유입을 위한 채용설명회 개최 등 홍보 추진
(MICE협회·PCO협회 협업)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MICE 특화 교육과정 및 취업 연계
- (업계 상생협약) 인력 이탈 방지를 위한 업계 자구노력으로 관련 협단체, 기업 간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유도
- (인력 실태조사) 지속적인 산업인력 현황 파악 및 진단을 위한 국제회의산업 인력 고용 및 근로 실태조사 정례화

□ 국제회의산업 맞춤형 인력 교육 강화

- (대학-업계 프로젝트) 컨벤션 전공 대학생과 국제회의기획업이 참여하는 국제회의 기획 실무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비인력 유입 활성화

◎ 대학-업계 실무교육 과정(안)

대학수업계획			실무 경진대회 + 기업공동 프로젝트	
기본 설계 아이템 발굴	전략수립 주제설정	작품설계 제작	제품 전시 평가	우수 사례 발표

⇒ (교수, 산업체) 현장실무인력 확보, 기업요구 과제 해결, 시제품 제작
(학생) 실무능력 강화, 전공 배양능력 향상, 취업 연계

- 지역 국제회의 서포터즈 연계 영마이스 리더 프로젝트, 국제회의 기업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실무능력을 갖춘 신규 인재 육성
- (업계 재직자 전문교육) 직급별(신입-중간-고위관리자) 필요 업무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실무역량 강화교육* 추진
 - * 신입(기본 직무), 중간관리자(프로젝트 관리), 고위관리자(경영) 등 맞춤교육
- 연중 업무 집중도가 높은 국제회의산업 특성 반영, 재직자 교육 과정을 온라인 교육 사이트에 탑재, 상시 교육 유도

- (국제회의 담당 공무원 교육) 중앙부처·지자체 주관 국제회의 유치·개최 수요증가에 맞춰 산업 이해, 유치 전략 등 담당자 교육(협회 연계)
- * 담당자 순환보직으로 인한 국제회의산업 전문성 부족 보완

□ 안전한 국제회의 개최 관리

- (안전관리 매뉴얼 활용) 대형 국제회의 개최 지원제도 및 공사 주관 공모사업 수혜 대상 국제회의 안전관리 매뉴얼 준수 의무화
- * 안전관리 체크리스트(참가자 관리, 행사장 조성 등) 및 매뉴얼 숙지
- (현장 안전대응 체계 구축) 현장 내 안전대응센터 운영, 행동 요령 홍보물 배포,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 실시간 정보 제공

4 지속가능한 국제회의산업 법·제도 마련

4-1 국제회의산업 법·제도 정비

□ 국제회의산업 지역·민간 협력 거버넌스 강화

- (시·도 기본계획 수립) 국제회의산업법에 시·도 국제회의산업 기본 계획 수립근거* 마련, 중앙-시도 간 국제회의산업 정책 정합성 제고
- * 시·도 기본계획 수립 사항·절차, 문체부장관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 명시
- 시도 기본계획 수립 시 ▲산업환경·수급분석, ▲정책사업, ▲예산 집행 계획 등은 중앙부처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협력체계 구축
- (거버넌스 협력 강화) 국제회의산업 관련 지자체와 민간 전문가 참여, 주요 정책 자문을 위한 '국제회의산업 정책 협의회' 운영
- 국제회의산업 육성 종합/실행계획 등 주요 국제회의산업 정책 협력과 자문을 강화하고, 정책 추진 우수지자체·민간에 대한 포상 강화

□ 국제회의복합지구 및 국제회의도시 운영성과 평가

- (복합지구 성과환류)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공통 성과목표·평가 기준 마련 및 운영성과 평가로 정책효율성 제고
 - * 지구별 자체 성과 목표 기준설정에 따른 평가 추진으로 질적 성과평가 부재
- 성과평가 후 우수한 복합지구 선정 및 인센티브(예산 지원 등) 제공

◎ 국제회의복합지구 운영성과 평가(안)

- (주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방법) 지자체: 지표 자가 진단, 정부: 총괄 성과평가(전문가 활용)
- (주기) 지자체 실태조사 2년 단위 진행, 성과 평가 5년 주기 진행
- (내용)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진흥계획(목표) 대비 운영 실태 및 성과평가
 - (운영실태) 국제회의 개최 건 수, 집적시설 신규/증축 현황, 사업체·종사자 수, 부담금 감면 현황, (성과평가) 목표 대비 달성 성과(고용창출, 관광 유발효과 등)
- (개선조치)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권고

- (국제회의도시 제도 정비) 국제회의도시 지정*(’05년~) 이후 실태조사 및 평가 부재 → 국제회의도시 모니터링 및 평가제도 도입**

* 국제회의도시(11개): 서울, 부산, 대구, 제주, 광주, 대전, 창원, 인천, 경주, 고양, 평창

** 국제회의산업법 제14조(국제회의도시 지정 및 평가 등) 조항 추가

-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에 지정취소 기준 마련하여 평가가 미흡한 국제회의도시에 대해 개선권고·지정 취소 등 실시, 제도 실효성 제고

□ 국제회의 관련 기업회의 정의와 유형 체계화

- (법령 개정) 국제회의산업 정책영역 및 대상·유형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제회의산업법상* 기업회의 세부기준(정의, 종류 등) 마련
 - * 국제회의 정의(국제회의산업법 제2조 1호):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 (세미나·토론회·전시회·기업회의 등)
- 국제회의 유형 중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기업회의의 유형 기준 설정, 개최 동향 등을 위한 연구 수행 및 제도 개선 추진

□ 국제회의산업 특수분류 제정

- (특수분류 마련) 산업분류 정의, 전후방산업 분류체계 등의 국제회의산업 특수분류 개발로 통계 신뢰성 제고 및 정책지원 활용

* 국제회의산업은 고부가가치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별도 산업분류가 부재하여 명확한 산업 규모·범위 및 파급효과 파악 한계

◎ 국제회의산업 특수분류 정의 및 업종(안)

대분류	정의	업종
기획·시설업	행사기획 및 개최시설 관련 업종	국제회의 기획업·시설업
개최지원업	행사 개최를 위해 동반되는 지원업종	국제회의 홍보업, 인쇄업, 설비 설치업 등
서비스업	행사 참가자 서비스 제공 업종	국제회의 식음료서비스업, 숙박업 등
관련 단체	산업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	지역 전담조직, 국제회의 협·단체 등

□ 국제회의산업 국가승인통계 지정 추진

- (승인통계 마련) 국제회의의 규모·업황 등 현황통계 미흡, 국제회의산업 정책지원 근거 및 업계 전략수립 등을 위한 국가승인통계 추진

* 현재 MICE 산업통계 중 △미팅(M), 컨벤션(C), 포상관광(I)은 한국관광공사 자체 통계집계, △전시(E)는 승인통계(전시산업진흥회) 인용

- 국제회의 기준(국제회의산업법), 국제회의시설업 등록(관광진흥법) 중심 모집단 구성* 등 적용, 국제회의 부문 국가승인통계 마련

* 국제회의 개최 장소의 86.3%는 등록시설인 국제회의시설업·호텔업·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안정적인 모집단 구축 용이(2022 MICE 산업통계 조사·연구)

◎ MICE 산업통계 회의 구분기준 변경(안)

구분	기준	구분	변경(안) (※ 정부·공공·학술·기업회의)
컨벤션	-전체 250명 및 외국인 10명 이상 참가 -4시간 이상 개최	국제회의	-전체 100명 이상 및 외국인 50명 이상 참가 -2일 이상 개최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미팅	(컨벤션이 아닌 회의) -전체 10명 이상 참가 -4시간 이상 개최	준국제회의	(국제회의가 아닌 회의) -전체 10명 이상 및 외국인 1명 이상 참가 -4시간 이상 개최
		기타회의	-10명 이상 참가(외국인 없음) -4시간 이상 개최

* MICE 산업통계 조사·연구(한국관광공사), 전문가 자문 결과 등 반영하여 고도화

□ 국제회의 지속성장 성과지표 도입

- (성과지표 고도화) 국제회의 개최실적 등 양적 지표와 함께 산업 경쟁력 및 지역 활성화 등의 정책성과를 포괄하는 지표 발굴 및 측정

- 국제회의산업 데이터 다양화 및 성과 중심의 질적 성장 지표 개발

* 국제회의산업 외화획득액, 산업 및 국가경제 기여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 국제회의산업 성과지표(안)

- 정부 및 지자체의 국제회의산업 지원사업의 성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질적 성과지표 고도화

- (기존 지표) 유치/개최건수, 참가자수, 매출액 등

- (추가 지표) 수출지표(외화획득액 고도화), 국제회의산업 국가(지자체) GDP 기여도, 수급분석, 지역 경제 파급효과 등

- 관광사업체·마이스 통계조사 결과 토대로 국제회의산업 전망과 동향 등의 질적지표 모니터링 체계 구축(K-MICE 등 연계)

V. 추진 일정

추진 과제		추진기관	추진일정
1. 지역 성장동력 국제회의산업 육성			
1-1. 지역 국제회의 신규수요 창출			
① 지역 시그니처 국제회의 성장단계별 육성	문체부, KTO, 지역CVB 등	'25년~	
② 지역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제도 개편	문체부, KTO, 지역CVB 등	'24년~	
③ 지역 기업회의·포상관광 유치 활성화	문체부, KTO 등	'24년~	
1-2. 지역 국제회의 유치·개최 역량 강화			
① 국제회의복합지구 제도 확대	문체부, 지자체, 문광연 등	'24년~	
② 지역 국제회의 전담조직 기능 강화	문체부, KTO, 지자체, 지역CVB 등	'24년~	
③ 국제회의 엠버서더 위상 강화	문체부, KTO, 지역 CVB, 학협회 등	'24년~	
2. 국제회의산업 글로벌 시장 선도			
2-1. 국제회의산업 글로벌 성장체계 마련			
① 글로벌 국제회의 유치 네트워크 강화	문체부, KTO 등	'24년~	
② 대형 국제회의 집중 유치·개최 지원제도 확대	문체부, KTO 등	'24년~	
③ 국제회의 주요 참가자 공항 입국심사 우대	문체부, KTO 등	'24년~	
④ 지속성장 가능한 국제회의산업 환경조성	문체부, KTO, 관련협회 등	'24년~	
2-2. K-컬처와 국제회의 융합			
① 참가자 대상 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문체부, KTO 등	'24년~	
② 융복합 국제이벤트 성장지원 확대	문체부, KTO 등	'24년~	
③ 참가자 이색경험 위한 유니크메뉴 활용	문체부, KTO, 지역CVB 등	'24년~	

추진 과제		추진기관	추진일정
3. 미래형 국제회의산업 혁신 기반 강화			
3-1. 국제회의산업 영역 확장			
① 국제회의시설업 지원업종 확대	문체부, KTO, 문광연 등	'24년~	
② 국제회의업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	문체부, KTO, 관련협회, 업계 등	'25년~	
③ 국제회의산업 디지털 기술기반 혁신 창출	문체부, KTO 등	'24년~	
④ 국제회의산업 통합정보 원스톱 플랫폼 구축	문체부, KTO, 학협회 등	'24년~	
3-2. 국제회의산업 인력확충 및 맞춤형 인력양성 육성			
① 국제회의산업 인력확충 지원	문체부, KTO, 관련협회 등	'24년~	
② 국제회의산업 맞춤형 인력 교육 강화	문체부, KTO, 관련협회 등	'24년~	
③ 안전한 국제회의 개최 관리	문체부, KTO, 관련협회 등	'24년~	
4. 지속가능한 국제회의산업 법·제도 마련			
4-1. 국제회의산업 법·제도 정비			
① 국제회의산업 지역·민간 협력 거버넌스 강화	문체부, 지자체, KTO 등	'24년~	
② 국제회의복합지구 및 국제회의도시 운영성과 평가	문체부, 지자체, 문광연 등	'25년~	
③ 국제회의 관련 기업회의 정의와 유형 체계화	문체부, KTO, 문광연 등	'24년~	
4-2. 국제회의산업 정책 기반 조성			
① 국제회의산업 특수분류 제정	문체부, KTO, 문광연 등	'24년~	
② 국제회의산업 국가승인통계 지정 추진	문체부, KTO, 문광연 등	'24년~	
③ 국제회의 지속성장 성과지표 도입	문체부, KTO, 문광연 등	'25년~	

* KTO: 한국관광공사, 지역 CBV: 지역 전담조직

참고 1

제5차 기본계획 추진 경과

- ◇ 향후 5개년(2024~2028) 국제회의산업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용역, 의견수렴, 수요조사 및 과제 발굴 진행
 - ‘제5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 ‘23. 5월 ~ ‘24. 5월
 - * 주관기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업계 관계자 소통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추진 과제 발굴 : ‘23. 6월 ~ 12월
 - * 현장 문제점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업계(국제회의기획업, 국제회의 시설업, 지역 국제회의전담조직(CVB), 한국MICE협회, 한국PCO협회 등) 간담회(4회)
 - * 제5차 기본계획의 방향설정을 위한 국제회의산업 분야별 전문가(문광연, 한국관광공사, 학계, 언론 등) 의견수렴(2회)
 - * 22개 기관(KTO, RTO, 지역CVB, 협회,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정책 수요 및 의견조사(‘23.6.~7.)
 - * 국제회의 주최 언론사 관계자 및 MICE 전문가와의 간담회 개최(‘23.11.29.)
 - 국제회의산업 예비종사자 대상 의견수렴 : ‘23. 7월
 - * 국제회의산업에서 필요한 인력양성 등 사업발굴을 위한 대학생 간담회 개최(‘23.7.10.)
 - 국제회의 관련 주요행사 참석 및 의견수렴 : ‘23. 8월 ~ 12월
 - * 제2차 한국MICE산업발전협의회(‘23.8.31.), 한국MICE코리아엑스포 및 제3차 한국MICE산업발전협의회(‘23.11.1.), MICE정책포럼(‘23.12.22) 등에 참석하여 전문가 및 일반인 의견수렴
 - 제5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안) 공유 및 의견수렴 : ‘24.1월~6월
 - * 한국관광공사, 학·협회, 지역국제회의 전담조직(CVB) 등 정책 유관기관 간담회(‘24.1.15.), 한국 MICE·PCO협회 간담회(‘24.2.7.), 시·도MICE업무 담당 과장·사무관 간담회(‘24.3.7.), 학·협회 정책 간담회(‘24.3.14.), 국제회의업계 간담회(‘24.5.9.), 국제회의업계, 학협회, 지역 전담조직, 전문가 참여 간담회(‘24.6.5.), 한국MICE협회 간담회(‘24.6.11.)
 - 「마이스산업 미래비전과 전략」 발표 및 MICE 관계자 의견수렴 : ‘24. 3. 25.

참고 2

제1~5차 기본계획 변화

□ (1~4차 계획) 국제회의산업 발전 기틀 마련('98~'05)부터 시설, 양적 성장 기반 구축('06~'10), 고부가가치화와 시장확대('14~'18),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19~'23)까지 산업 발전계획 추진

⇒ (5차 전략)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제회의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국제회의산업과 지역산업 연계를 통한 국제회의산업 신규수요 창출 및 제도약을 주요 목표로 설정함

【 제1차~제5차 기본계획 핵심 아젠다 및 변화 】

제1차 기본계획(1998~2005) 산업 발전 기틀 마련	제2차 기본계획(2006~2010) 양적 성장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IA) 국제회의 200건 개최 - (외화획득) 1.5억 달러 달성 - (시설) 대형 전문회의시설 3개소 건립 • 주요 정책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전문회의시설 건립 - (조직) 전담조직 설립 - (도시정책) 국제회의도시 도입 - (사업) 국제회의용역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IA) 국제회의 220건 개최 - (외화획득) 2.5억 달러 달성 → - (GDP 비중) 0.04%로 확대 • 주요 정책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인프라 확장 - (조직) CVB/PCO 협회 역할 정립 - (도시정책) 중앙 홍보사이트 구축 - (사업) 재정지원 사업 확대
제3차 기본계획(2014~2018) 고부가가치화 및 시장확대	제4차 기본계획(2019~2023)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IA) 국제회의 790건 개최 - (외화획득) 14.5억 달러 달성 - (외국인 참가자 수) 40만 명 달성 • 주요 정책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기업의 수익구조 다변화 - (인력) 전문인력 양성 - (협력)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발굴) 지역 국제회의 발굴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2.5조 원 달성 - (인력) 2.0만 명 고용 창출 → • 주요 정책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환경) 공정거래 환경 구축 - (창업) 기업 성장지원 및 창업 육성 - (수요창출) K-컨벤션/융복합 국제회의 - (교육) 산-학 연계 재직자 대상 전문교육
제5차 기본계획(2024~2028) 지역 상생과 미래 혁신으로 글로벌 국제회의산업 중추국가로 도약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IA) 국제회의 1,400건 개최 *세계1위 - (외국인 참가자 수) 130만 명 달성 - (외화획득) 30억 달러 달성 *약 4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정책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창출) 지역 시그니처 국제회의 육성 - (글로벌) 국제회의 유치 네트워크 강화 - (시설) 국제회의복합지구 제도 개편 - (융합) 융복합 국제이벤트 성장지원 확대